

교과서 독해

지식은 곧 힘이다. -베이컨



경제편 2016

국어 교재 전문가 한은영



경제편

PART 01 수요와 공급/ 탄력성/ 대체재, 보완재

↳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1) 008

PART 02 시장 가격의 결정/ 소비자잉여

↳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2) 034

PART 03 외부효과/ 재화의 배재성, 경합성

↳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은?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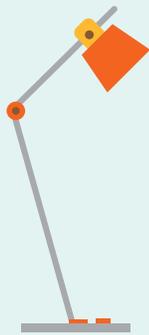
PART 04 GDP/ 경제성장률/ 실업/ 인플레이션

↳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방법은? 094

PART 05 이자율/ 주식, 채권, 연금

↳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134





교과서 독해 경제편 2016

지식은 곧 힘이다. -베이컨

“국어영역 만점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평소에 과학과목에 자신 있었던 학생은 과학지문을 읽을 때도 자신 있게 읽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철학책을 즐겨 읽었던 학생은 어려운 철학지문이 나와도 오히려 친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지문을 건성으로 읽고 배경지식에 의지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이라도 전달방식에 따라 주제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글이건)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배경지식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독서의 과정에는 단어나 문장 등을 읽어 가면서 글을 이해하는 상향식 과정과 독자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글을 예측하며 읽는 하향식 과정이 있는데 독서의 과정에서는 둘 중 어느 한 가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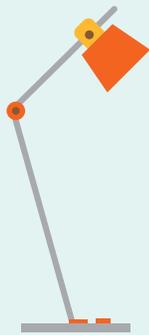
모든 글을 술술 읽어낼 수 있는 기막힌 독해비법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바람은 마치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으니 옷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고 집도 내주는 마술램프 하나만 나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배경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독서과목의 교육과정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읽어야 할까요? 잘못된 배경지식은 오히려 독서에 방해가 될 수도 있
다니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책은 그동안 본 듯 만 듯 무심하게
여겨왔던 ‘교과서’입니다. 때로는 졸다가 낙서도 하고 심심풀이로 표지에 구멍을 뚫기도 하
며 천대했던 교과서 말입니다.

국어영역은 ‘글’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글 읽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수능 지
문뿐 아니라 신문, 잡지, 소설책…… 글로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같고 닳은 글 읽기 실력으로 과학, 경제, 윤리
등의 타 과목 교과서의 본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얻게 된 배경지식은 거꾸로 여
러분들의 독해실력을 더욱 탄탄히 다져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필자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국어’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
다. 국어과목을 통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서도 흥미와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교재를 공부하며 익힌 지식과 지
혜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과서 독해 경제편 2016

지식은 곧 힘이다. -베이컨

“만점 제자를 키우고 싶으신 선생님들께”

학생마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것이 자신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란 평소 많이 접해본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분명히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과학기술 지문에 쉽게 접근하고 문과 학생들이 철학이나 예술지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가령 과학 지문에 자신있어하는 이과 학생들은 자의든 타의든 책이나 시각자료 등을 통해 과학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난 과학지문은 눈 감고도 풀어.”라고 하면서 자만한 자세를 취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특정 분야의 독해에서만큼은 숨은 파워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국어선생인 내가 과학까지 연구해서 가르쳐야 하나?” 필자의 대답은 단연 “아니요.”입니다. 국어선생님은 어디까지나 국어의 전문 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지도한다는 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국어선생님께 글 읽기 방법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글로 쓰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책도, 경제책도, 철학책도…… 글로 쓰인 것이라면 모든 책을 가리지 않고 잘 읽게 해주는 것이 국어선생님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이 교재로 수업하시면서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글’과 ‘그래프’ 보는 법을 지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제문제까지 실어놓은 이 책이 얼핏 경제공부를 위한 교재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경제과목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선생님도 이 책을 보면서 국어를 지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 교재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해서 경제 시험에서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국어선생님이 100명이라면 100개의 독해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이미 선생님은 최고의 독해전문가이며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독해법도 그 학생에게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필자는 오히려 이 책을 통해 선생님께서 평소에 지도하셨던 독해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어과 선생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좋은 교재를 집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비상교육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저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Memo



교과서 확인하기 1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다.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상품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만 변할 경우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수요'라 한다.

→ 수요량은 ()을 말하며, 수요는 ()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가령 사과가 몸에 좋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사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뉴스 보도는 일반적으로 같은 가격대에서 더 많은 사과를 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가격대의 수요량 전체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하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데 이것을 '수요의 변동'이라 한다.

→ 수요의 변동은 ()이 변화했을 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변동은 수요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변화, 수요자의 증감, 수요자의 취향이나 유행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변화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인 상품은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좋아지면 같은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좋아졌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상품도 있다. 전자를 '정상재', 후자를 '열등재'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증가로 보일러를 선호하게 되면서 연탄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보일러는 정상재, 연탄은 열등재의 사례가 될 수 있다.

→ ()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화했을 때, 반대 방향의 수요 변화를 보인다.

한편 특정 재화의 수요는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두 상품을 각각 소비할 때보다 같이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두 상품을 '보완재' 라 하며, 두 상품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상품으로 소비를 바꿔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두 상품을 '대체재' 라고 한다.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은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수요를 줄어든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그 상품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보완재의 소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보완재의 사례로 자동차와 휘발유, 샤프와 샤프심 등을, 대체재의 사례로 사과와 배, 버터와 마가린 등을 들 수 있다.

→ 특정 재화의 가격 변화는 ()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에 대해 공급자가 특정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공급량 역시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데, 공급량은 수요량과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증가한다. 이처럼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만 변할 경우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공급' 이라 한다.

→ 공급량은 ()이며, 공급은 ()을 말한다.

공급의 변화도 수요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시장에서 *원재료나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공급이 감소한다. 반대로 원재료나 생산 요소의 가격이 내려가면 상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생산 기술이 발전한 경우에도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생산비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 기업들의 공급이 증가한다.

→ 공급의 변동은 생산 요소나 기술 변화 등 ()이 변화했을 때 나타난다.

미래의 가격에 대한 예상도 상품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 가격 하락 전에 미리 판매하기 위해 기업들이 현재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생산된 가격이 오를 때 팔기 위해 상품을 저장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 이밖에 개별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하고, 줄어들면 공급도 감소한다. 또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금이 지급되면 새로운 공급자가 생겨나 공급이 증가하고, 반대로 세금을 인상하면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 상품의 가격에 대한 예상, 공급자 수의 변화 등은 공급이 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능국어 필수 어휘

* 원재료(原材料) :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비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의 일종

* 생산요소(生産要素) : 재화의 생산과정에 투입·결합되는 경제자원



핵심개념 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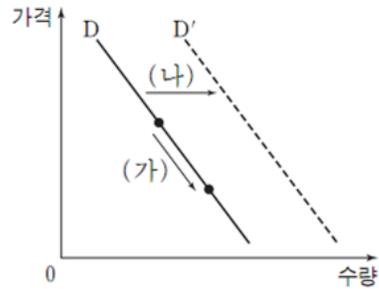
-
- 핵심1** **수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각 가격에서 나타나는 수요량의 조합을 나타낸 것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의미한다.
-
- 핵심2** **공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각 가격에서 나타나는 공급량의 조합을 나타낸 것으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의미한다.
-
- 핵심3** **정상재** 소득과 재산 상태의 변화가 같은 가격대에서 수요량과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일반적인 상품
-
- 핵심4** **열등재** 소득과 재산 상태의 변화가 같은 가격대에서 수요량과 다른 방향으로 변하는 상품
-
- 핵심5** **보완재**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은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상품
-
- 핵심6** **대체재**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은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

△ 핵심 확인하기

- ①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관계에 있다. ○X
- ② 소득이나 재산상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X
- ③ 수요량과 수요는 모두 가격의 변동에 따라 좌우되는 값이다. ○X
- ④ 열등재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좋아졌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이다. ○X
- ⑤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상품에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X
- ⑥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X
- ⑦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X
- ⑧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X
- ⑨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게 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다. ○X
- ⑩ 미래의 가격에 대한 예상과 공급자의 수는 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

문제로 확인하기 1

■ 그림은 X재의 수요량 또는 수요의 변동을 나타낸다. (가) 또는 (나)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X재 생산비의 상승은 (가)의 요인이 된다.
- ② X재의 보완재인 Y재의 가격의 하락은 (가)의 요인이 된다.
- ③ X재의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증가는 (가)의 요인이 된다.
- ④ X재의 대체재인 Z의 가격 상승은 (나)의 요인이 된다.
- ⑤ X재가 정상재이면 소비자들의 소득 감소는 (나)의 요인이 된다.

교과서 본문 다시 보기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가령 사과가 몸에 좋다는 뉴스가 보도 되면 사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뉴스 보도는 일반적으로 같은 가격대에서 더 많은 사과를 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가격대의 수요량 전체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하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데 이것을 '수요의 변동'이라 한다.



문제로 확인하기 2

■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OO마트는 최근 X재에 대한 가격 할인 행사를 벌였다. 그런데 X재에 대한 할인이 진행되는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던 Y재의 판매량이 감소했다. OO마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Y재는 X재의 연관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다른 요인에는 변동이 없다.)

보기

- ㄱ. X재의 가격과 Y재의 수요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 ㄴ. X재와 Y재는 용도가 비슷하여 대체 사용이 가능한 재화이다.
- ㄷ. X재의 가격이 인하되면 Y재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ㄹ. X재의 가격이 상승되면 Y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 * 음(-)의 상관관계 : 한 쪽이 증가(감소)하면 다른 한 쪽은 감소(증가)하는 관계
- * 양(+)의 상관관계 : 한 쪽이 증가(감소)하면 다른 한 쪽도 증가(감소)하는 관계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ㄹ

📖 교과서 본문 다시 보기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은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수요를 줄어뜨리게 한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그 상품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보완재의 소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ㄷ. “수요 곡선의 좌측(우측)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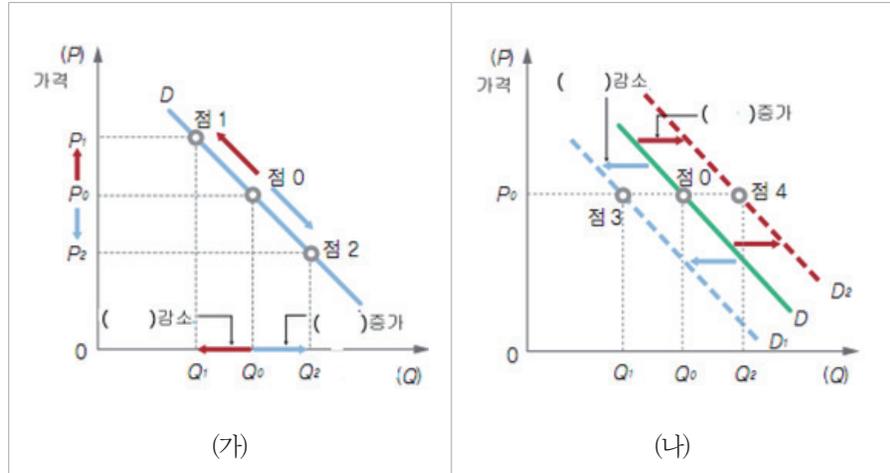
-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모든 가격수준에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되므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
-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모든 가격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므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

문제로 확인하기(1)의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절대필수 그래프 |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

01



교과서 본문 다시 보기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다.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상품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만 변할 경우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수요'라 한다.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가령 사과가 몸에 좋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사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뉴스 보도는 일반적으로 같은 가격대에서 더 많은 사과를 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가격대의 수요량 전체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하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데 이것을 '수요의 변동'이라 한다.

1. 다음에서 (가)와 (나)의 () 안에 알맞은 말을 각각 골라 넣어 보자.

수요 수요량 공급 공급량

2. (가)에서 '점0' 이 '점1' 과 '점2' 로 이동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각각 써 보자.

점1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서 ()을, 점2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내리면서 ()을 나타낸다.

3. 다음에서 (나)의 '점0' 이 '점3' 과 '점4' 로 이동하는 경우를 각각 골라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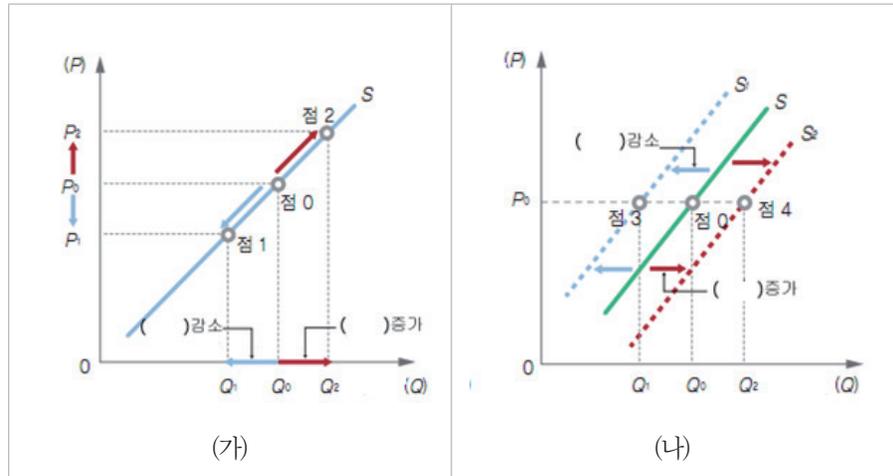
- ㄱ.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정상재의 수요 변화
- 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열등재의 수요 변화
- ㄷ.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뉴스 보도 이후 커피의 수요 변화
- ㄹ. 여름철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일기예보 이후 에어컨의 수요 변화
- ㅁ. 우유와 보완관계에 있는 빵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유의 수요변화
- ㅂ. 녹차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차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녹차의 수요 변화

교과서 본문 다시 보기

…… 이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변화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인 상품은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좋아지면 같은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좋아졌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상품도 있다. 전자를 '정상재', 후자를 '열등재' 라 한다. ……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은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수요를 줄어뜨리게 한다.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그 상품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보완재의 소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 점3으로 이동하는 경우:
- 점4로 이동하는 경우:

02



교과서 본문 다시 보기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에 대해 생산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특정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공급량 역시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데, 공급량은 수요량과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증가한다. 이처럼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만 변할 경우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며,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공급'이라 한다.

1. 다음에서 (가)와 (나)의 () 안에 알맞은 말을 각각 골라 넣어 보자.

수요 수요량 공급 공급량

2. (가)에서 '점0'이 '점1'과 '점2'로 이동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각각 써 보자.

점1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내리면서 ()을, 점2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서 ()을 나타낸다.

3. 다음에서 (나)의 '점0' 이 '점3' 과 '점4' 로 이동하는 경우를 각각 골라 써 보자.

- ㄱ. 생산성이 뛰어난 토마토 품종이 개발될 때 토마토의 공급 변화
- ㄴ. 수입 개방으로 자동차가 수입될 때 국내 시장의 자동차 공급 변화
- ㄷ. 가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목의 가격이 오를 때 가구의 공급 변화
- ㄹ. 6개월 후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휘발유의 공급 변화
- ㅁ.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회사에 보조금이 지급될 때 반도체 칩의 공급 변화

교과서 본문 다시 보기

공급의 변화도 수요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시장에서 원재로나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공급이 감소한다. …… 생산 기술이 발전한 경우에도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생산비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 기업들의 공급이 증가한다. 미래의 가격에 대한 예상도 상품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 가격 하락 전에 미리 판매하기 위해 기업들이 현재의 공급을 늘린다. …… 이 밖에 개별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하고, 줄어들면 공급도 감소한다. 또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금이 지급되면 새로운 공급자 생겨나 공급이 증가하고, 반대로 세금을 인상하면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 점3으로 이동하는 경우:
- 점4로 이동하는 경우:

이재경샘의 국어공부TIP



“ 그래프는 결국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 ”

그래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프는 정말 어려운걸까?

경제나 과학기술 지문에 출제되는 그래프 문제를 유독 싫어하는 학생들은 수학에 자신이 없거나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경우가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들에게는 문과 두뇌만 있지 이과 두뇌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입견이다. 그리고 선입견은 공부를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그래프를 읽기 위해서는 수학 차원이 아닌 약간의 산수 지식이 필요한데, X축, Y축, 비례, 반비례, 증가, 감소…… 정도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용어를 모르고 있을 학생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프는 한마디로 지문의 논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지문의 어려운 논지를 더 어렵게 보이도록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도식화라는 뜻이다. 지문의 내용은 어려웠는데 그래프를 보니 한 번에 이해가 가는 경험을 해 본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본 교재를 공부할 때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를 풀 때도 지문과 그래프를 따로국밥처럼 이해하지 말고 반드시 연결하여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제대로 출제된 문제라면, 그래프는 보나마나 지문의 가장 중요한 논지를 압축해 놓은 것일 테니 말이다.

샘은 여러분들이 수학도 잘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프 해석도 어려운 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꼭 염두에 두길 바란다. 지문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한 학생은 반드시 그래프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 확인하기 3

다른 시장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어 구한다. 그런데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방향은 언제나 반대이므로, 즉 서로 음의 관계를 가지므로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text{수요의 가격 탄력성} =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 (\%)}{\text{가격의 변화율} (\%)} \right|$$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수요량)의 변화율에 따른 (□가격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인 수요라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값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더 큼을 의미한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을수록 그리고 수요자가 보다 유연하게 가격의 변동에 대처할수록 커진다. 따라서 ㉠대체제가 많은 상품인가 없는 상품인가, ㉡사치품인가 필수품인가, ㉢수요자가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진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작은) 상품일수록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알려주었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 공급량의 변화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변하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구한다.

$$\text{공급의 가격 탄력성} = \left| \frac{\text{공급량의 변화율} (\%)}{\text{가격의 변화율} (\%)} \right|$$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공급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공급이라 한다. 값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인 공급이라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공급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 생산 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이 어떠한가,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따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진다.

→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공급량)의 변화율에 따른 (□가격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타낸 지표이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작은) 상품일수록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가 민감하다.

④ 핵심개념 뽑기

핵심1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에 따라 ()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핵심2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에 따라 ()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④ 핵심 확인하기

①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이다.

② 가격의 변화율이 공급의 변화율보다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이다.

※ 다음 사례가 ㉠~㉢중 어떤 것을 설명하기에 적합한지 골라보자

③ 사이다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콜라의 가격이 오르면 콜라의 수요량은 많이 줄게 된다.

㉠ ㉡ ㉢

④ 휘발유 가격이 올랐을 때 당장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승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한다.

㉠ ㉡ ㉢

⑤ 금반지는 굳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들은 쉽게 구입을 포기한다.

㉠ ㉡ ㉢

[참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와 그 범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의 대체재를 팥빙수까지 넓혀서 생각한다면,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은 팥빙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아이스크림 수요는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대체재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이스크림의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재화의 성격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소비량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사치품은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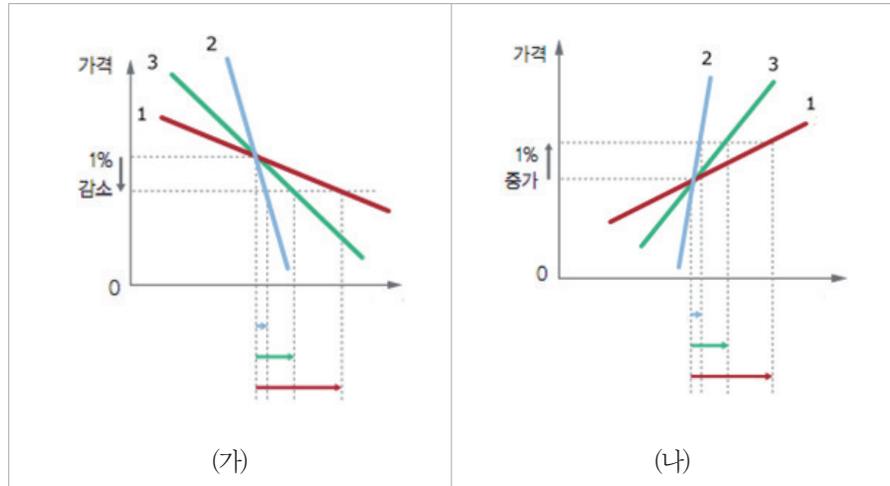
셋째,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이 그들의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하려는 계획인데, 일정 기간이라는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당장은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소비를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넷째, 상품이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필 소비는 소비 예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필 가격이 비싸져도 연필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는 데 비해, 주택이나 자동차, 가구 등은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량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절대필수 그래프 |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

01



📖 교과서 본문 다시 보기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방향은 언제나 반대이므로, 즉 서로 음의 관계를 가지므로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text{수요의 가격 탄력성} =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 (\%)}{\text{가격의 변화율} (\%)} \right|$$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더 큼을 의미한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 공급량의 변화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변하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구한다.

$$\text{공급의 가격 탄력성} = \left| \frac{\text{공급량의 변화율} (\%)}{\text{가격의 변화율} (\%)} \right|$$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공급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공급이라 한다. 값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인 공급이라 한다.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은?

- (가) (나)

2.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은?

- (가) (나)

3. 위에서 배운 공식을 떠올리며 (가)의 상품 1, 2, 3을 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한 순으로 나열해 보자.

$$\text{수요의 가격 탄력성} =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 (\%)}{\text{가격의 변화율} (\%)} \right|$$

4. 위에서 배운 공식을 떠올리며 (나)의 상품 1, 2, 3을 가격 변화에 가장 민감한 순으로 나열해 보자.

$$\text{공급의 가격 탄력성} = \left| \frac{\text{공급량의 변화율} (\%)}{\text{가격의 변화율} (\%)} \right|$$

A 기출 확인하기 1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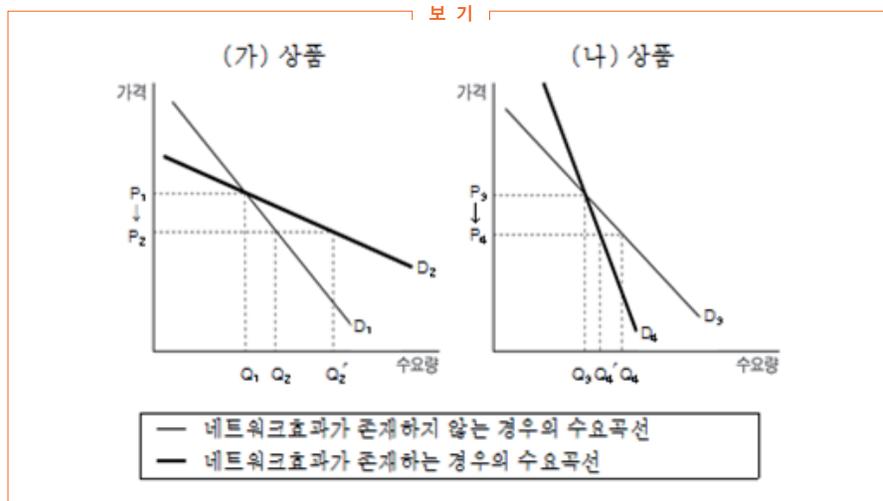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1.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 밑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1 에서 Q_2 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_1 에서 Q_2' 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_3 에서 Q_4' 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_4 가 아니라 Q_4' 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_1 과 D_2 , D_3 과 D_4 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3.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⑤

▲ 기출 확인하기 2

콩나물의 가격 변화에 따라 콩나물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콩나물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 시금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시금치를 콩나물로 대체한다. 그러면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시금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콩나물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다. 또는 콩나물이 몸에 좋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가면 콩나물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의 수요량이 급증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는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정상재이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가 있는데 이를 '열등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용돈을 받아 쓰던 학생 때는 버스를 이용하다 취직해서 소득이 증가하여 자가용을 타게 되면 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이 경우 버스는 열등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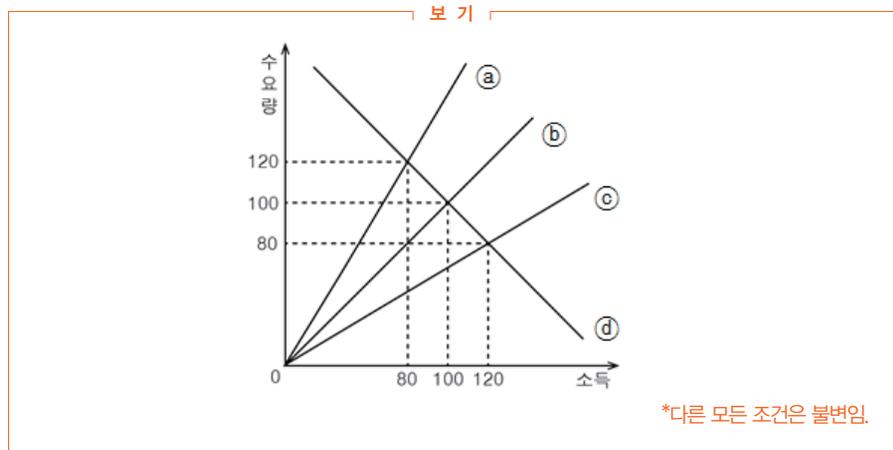
정상재와 열등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양수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므로 정상재이다. 반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열등재이다. 정상재이면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즉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치재'라고 한다. 반면에 정상재이면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를 '필수재'라고 한다.

정상재와 열등재는 가격이나 선호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만 변했을 때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개념이다. 하지만 특정 재화를 명확하게 정상재나 열등재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동일한 재화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열등재가 되기도 하고 정상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재로 볼 수 있지만 소득이 아주 높아져서 취향이 달라지면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열등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재화의 수요 변화는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취향, 장래에 대한 예상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1. 밑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사치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② 사치재와 필수재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정상재와 열등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⑤ 수요의 변화란 무엇인가?

2. <보기>는 소득에 따른 재화 ㉠~㉣의 수요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므로 사치재로 볼 수 있겠군.
 ㄴ. ㉠과 ㉣를 통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ㄷ.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탄의 수요가 감소하고 보일러의 수요가 증가한 경우, 연탄으로 ㉡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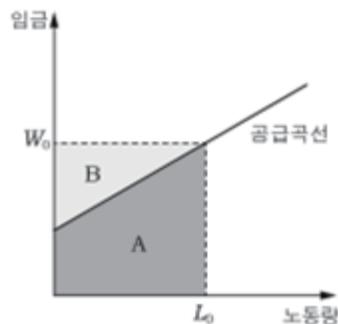
보기

갑은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고 한 달 용돈이 20,000원일 때 지하철을 20번 탔고 용돈이 40,000원일 때 40번 탔다. 그런데 이번 달에 20,000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지하철 요금이 500원으로 내려서 40번 탈 수 있게 되었다.

- ① 지하철은 갑의 소득이 높아지면 정상재에서 열등재가 되는군.
- ② 지하철에 대한 수요 변화는 지하철에 대한 갑의 선호도로 결정되었군.
- ③ 지하철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 변화로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했군.
- ④ 지하철 요금의 인하는 갑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군.
- ⑤ 지하철 요금과 갑의 소득 수준이 변하더라도 지하철에 대한 수요량은 변화할 수 없겠군.

△ 기출 확인하기 3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연봉에 관한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같은 종목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수입의 차이는 다른 직종의 구성원 사이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지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공급곡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은 한 노동자의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노동공급곡선이란 임금에 따라 노동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을 표시한 곡선을 의미한다. 이 곡선에서 균형임금 *이 W_0 라고 할 때, L_0 만큼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총수입은 $L_0 \times W_0$ 로, A와 B를 합한 면적이 된다. 이때 A는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수입(轉用收入)이라고 한다. 그리고 B는 총수입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이를 경제적 지대(經濟的地代)라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 공급으로 얻는 수입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작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왜냐하면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는 노동 공급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희소해지고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소득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노동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그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소득의 대부분을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공급이 많이 증가하므로 희소성이 없어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서로 반비례하는데 극단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에 희소성이 전혀 없어 이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되고 소득은 전부 전용수입이 된다. 반대로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희소성이 가장 커지므로 소득은 전부 경제적 지대가 된다.

한편,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한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진입장벽을 높여 타 집단과의 자유경쟁을 억압하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부른다. 지대추구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진입장벽의 철폐, 각종 기득권의 해체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지대의 철폐라고 볼 수 있다.

* **균형임금** :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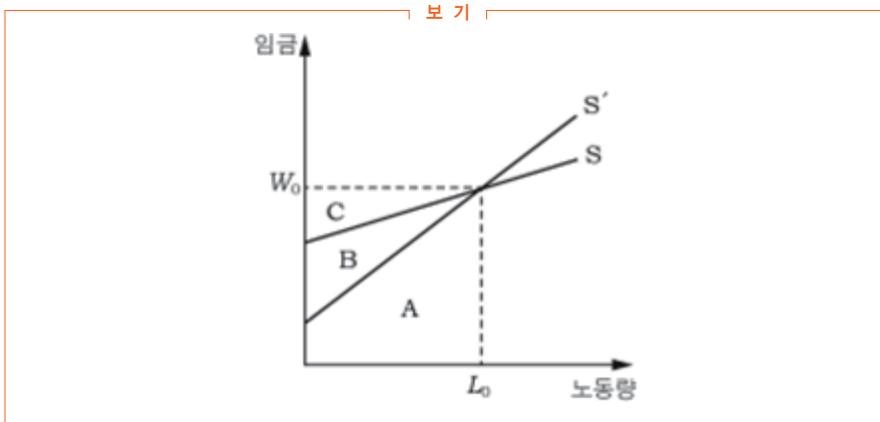
노동 시장에서의 공급곡선을 보여주는 글이다.

노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자면, 임금은 결국 상품의 '가격', 노동량은 상품의 '공급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배운 공급곡선의 특성을 떠올리며 연결시켜 생각해 보자.

1.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전용수입의 개념은 무엇일까?
- ② 노동 공급이 탄력적인 직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③ 지대추구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④ 경제적 지대가 없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일까?
- ⑤ 노동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경제적 지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

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두 공급곡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에 비해 S'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의 증가량이 더 커진다.
- ② S에 비해 S'는 노동 공급에 희소성이 있어 경제적 지대가 더 크다.
- ③ S'에 비해 S는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 ④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와 S'의 총수입은 각각 A+B+C로 같다.
- ⑤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의 전용수입은 A+B이고, S'의 전용수입은 A에 해당된다.